

## 教育의 人間化



韓南大 總長 李 元 高

최근 先進各國에서는 教育에 대한 反省과 함께 教育改革의 運動이 進行되고 있다. 美國은 교육의 秀越性을 강조하고 日本은 個性尊重과 自由化를 추구하고 있다. 우리 나라도 民主化, 開放化 및 國際化 등을 목표로 現今의 教育에 대한 全面的인 검토와 未來世界에 대응할 새로운 方案들이 논의되고 있다.

원래 教育의 語源은 'Eductio=to bring forth'이다. 즉 知識의 개발이나 傳達보다도 한 개인이 타고난 天賦의 能力을 潛在態로 두지 않고 開發伸張시켜 自我實現을 하게 돕는 것이다. 따라서 教育은 이데올로기의 注入手段이나 한 集團의 구성원 訓練 方便에만 머물 수 없다. 社會的 存在인 인간은 自我實現의 터전이 社會이기 때문에 參與된 人間完成도 社會的 關係 속에서 달성될 수 있다.

이런 점에서 '弘益人間'은 時空을 초월한 教育理念이라고 본다. 이는 개인의 人格 完成과 社會奉仕를 함께 요구하는 것이다. 逆說的인 예로서 經濟開發이나 政治發展의 手段이 된 教育은 오히려 정치, 경제의 저해作用을 일으켜 각종 社會적 弊害를 일으킨다. 개인의 天賦的 可能態를 개발하는 教育本來의 目的과 빗나갈 때 社會發展은 정체된다. 반면 개인이 社會性의 극대화로 自我實現과 人間적 성숙을 이루면 정치·경제도 개선된다. 歷史發展의 原動力은 人間이기 때문이다.

이런 視角에서 볼 때 未來指向의 教育의 목표는 '教育의 人間化'로 설정해야 될 것이다. 이는 世界歷史의 發展 추세와도 병행된다고 본다.

Alvin Toffler 가 쓴 「제3의 파도」는 先進社會들이 이미 人間化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進行되고 있는 事例들을 열거하고 있다. 첫째로 生産工場이 小型化되어 작업하는 사람들이 서로 친밀한 人間關係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 家族의 분위기를 맞보는 소그룹의 社會的 場이 生産性 向上에 기여하듯이 教育기관도 大型化를 벗어나

小型志向化함으로 人間化를 도모해야 될 것이다. 둘째로 E.F.Schumacher 는 「작은 것이 아름답다(Small is beautiful)」에서 기술도 中間技術(intermediate technology)의 體系를 주장하고 있다. 또 英國에서는 適正技術(appropriate technology)을 연구하여 기술의 人間化를 도모하고 있다. 교육도 人間本位의 技術을 조장함으로 인간이 機械에 종속되는 불행을 막아야 될 것이다. 세째로, ‘生産·消費人’의 출현이다. 지금까지는 生産工程의 복잡화로 勞動者는 거대한 assembly line의 극히 部分的인 工程의 전문적인 일에만 참여하고 있어 자기가 생산한 完成品을 직접 보고 成就의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. 그러나 앞으로는 生産工程이 단축되어 生産者가 完成品을 직접 보고 소비하는 生産의 人間化가 실현될 것이다. 네째로 큰 組織에 예속되지 않는 獨立職業人이 증가될 추세이다. 변호사, 醫師, 文人과 같이 非組織的인 직업인이 늘어나 컴퓨터를 main system 과 연결해 놓고 자기 집에서 獨自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증가될 것이다. 그러나 교육도 종래의 같이 組織人間(William Whyte, Jr., organization man)을 길러내어 大型組織에 순응하며 살도록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天賦的인 才能을 만족스럽게 개발하여 創造的으로 環境을 개척하고 高尚한 價値를 指向하며 의미 있는 삶을 운영할 수 있는 바람직한 人間成長을 도모해야 될 것이다.

따라서 우리가 지향할 教育은 全人的이어야 한다. 급속히 변화하여 豫測을 불허하는 未來의 충격에 유연한 對應力을 갖추려면 知·德·體가 균형 있게 發達된 人間 곧 예리한 知能과 善한 心性 그리고 강인한 體力과 意志力을 갖춘 全人(the total man)을 양육해야 될 것이다. 이 같은 教育의 理想(what ought to be)을 실현할 可能한 方法(what is possible)을 몇 가지 課題로 요약한다면 ① 教育을 時勢變化와 社會要請에 부응시키면서도 全人的인 人格者 養成이라는 목표에 연결시키는 二重課題, ② 教育의 道具의 가치를 살려서 實用的인 技術을 가르치면서도 그 본래의 價値 즉 개인의 天賦的인 才能을 極大化시켜 自己實現을 성취시키는 教育, ③ 教育의 大衆化 추세에 맞춰 顯的인 팽창을 하면서도 教育內容의 質을 높이는 教育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.

이렇게 相衝되는 課題들을 동시에 충족시킬 單一方法은 없다. 時代가 변하고 環境이 달라질수록 새로운 難題들이 출현할 것이기 때문이다. 그러나 아무리 狀況과 여건이 변해도 타협할 수 없는 教育의 指標은 ‘教育의 人間化’이다. 인간은 어떤 조건에서도 目的價値일 뿐 手段化될 수 없다. 교육도 知識傳達, 生産 및 이데올로기의 종속적 수단이나 아니라 각 개인의 타고난 潛在可能性을 만족스럽게 실현하여 個性과 統合性이 함께 성취되도록 助力하는 課業이어야 한다. 이의 부산물로 經濟發展, 社會安定, 文化暢達 등이 실현될 것이다. 21世紀를 향한 우리 教育의 모든 努力은 ‘教育의 人間化’를 效率的으로 실현하는 데 投入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. \*